

캘리포니아 거주 재미교포의 사회경제적 요인, 동화 정도, 생활양식이 식이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 윤 주*(샌디에고 주립대학 보건대학원 박사후연구원)

백 희 영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 해 련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C. Richard Hofstetter (샌디에고 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Melbourne Hovell (샌디에고 주립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Jooeun Lee (샌디에고 주립대학 보건대학원 행동역학및지역건강연구소 코디네이터)

Veronica Irvin (샌디에고 주립대학 보건대학원 행동역학및지역건강연구소 코디네이터)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의 식이 패턴을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동화정도, 생활양식이 식이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그 중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을 먼저 가려낸 후, 무작위 추출법에 의거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 총 2,830명이었다. 본 연구는 개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지의 구성은 20개의 주요식품에 대한 식품섭취빈도를 이용한 식이 설문과 미국내 동화정도 측정을 위한 동화 설문 및 소득,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설문, 그리고 음주, 흡연, 운동, 패스트푸드, 및 신장, 체중 등의 생활양식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식이 패턴은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통하여 4가지 패턴 - 미국음식(American Food), 미국아침(American Breakfast), 한국음식(Korean Foods), 채소(Vegetables)-으로 분리되었다. 미국음식패턴에는 젊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동화가 많이 될수록,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는 사람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아침패턴에서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흡연을 할수록,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한국음식패턴에서는 동화가 덜 될수록, 교육, 소득 등의 사회적 계층 수준이 낮은 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채소패턴에서는 운동을 하고, 담배와 패스트푸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과 생활양식은 재미교포의 식이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다른 연구결과와는 달리 재미교포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미국음식에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미국 사회로의 동화가 될수록, 미국내의 사회적 계층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한국음식의 건강한 식생활 형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 식생활 형태로 전이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재미교포에 대한 다각적인 식생활 평가 및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 관련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